

마크 제닝스 박사, 마가복음 5강, 마가복음 2:18-28. 공적 사역은 계속된다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18-28에 대한 세션 5입니다. 공적 사역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공부했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 중 하나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시작으로 나병과 순수함, 순수함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의 순수함은 나병환자의 불순함보다 강합니다. 그런 다음 마비된 사람을 살펴보았고, 예수께서 마비된 사람과 함께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셨는지, 그들의 믿음의 근육질의 표현,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그들의 적극적인 헌신,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여 죄를 용서하는 그의 능력을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죄를 용서하는 그의 능력을 마비된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의 능력과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간에는 예수님의 권위, 생각을 지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 지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암시되었던 것이 지금 시작되고, 그 분열은 그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긴장은 레위의 부름으로 이어졌고, 예수께서는 세리로서의 능력과 지위를 감안할 때 그가 행했을 강탈 때문에 멸시받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사람을 가증스럽고 정의상 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여전히 불렸고, 예수의 부름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예수의 결정이며, 그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는 즉시 따라갑니다. 파티가 있었고, 그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내가 주장한 것은 다른 최악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매춘부, 아마도 신체적 해를 입히기 위해 일종의 난폭한 사람으로 이용된 강한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사회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정의상 죄인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의 명예와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온 정확한 그룹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는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커지는 논란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논란이 서로 쌓이는 것을 봅니다. 마가는 종종 논란을 바로 줄지어 제시하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2장에서 금식에 대한 문제에 관해 발생하는 논란을 살펴보고 18-22절을 살펴보며 작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습니까?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때가 올 것이고 그날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꿰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조각이 오래된 조각에서 떨어져 나가 찢어짐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무도 새 와인을 오래된 와인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와인이 부대를 터뜨리고 와인과 와인 부대가 모두 망가질 것입니다.

아니요, 그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붓습니다. 그래서 18-20절과 21-22절에 요약된 내용과 금식에 대한 질문, 그리고 천과 포도주에 대한 진술이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18-20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기적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금식을 잘못된 것으로 만든 새로운 것을 장면에 가져온 사람으로서 축하의 초점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 금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맥락을 설정해 보세요. 아마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행해졌을 정기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속죄일이나 로쉬 하샤나와 같은 축제와 관련된 연례 금식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함축된 의미는 정기적으로 행해졌을 확립된 금식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추종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언급하면서 행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논리가 작동하는 방식은 여기 두 개의 매우 존경받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바리새인을 따라온 사람들이고, 이 그룹들은 꾸준히 규칙적인 금식을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당신은 알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질문의 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또는 오히려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 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함정을 파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단지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게 물었다고 말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진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질문의 본질상 바리새인에 대한 언급이 둘을 약간 섞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서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항상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교사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짚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이 금식하도록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질문은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신랑의 손님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대답합니다. 이제, 신랑의 손님들이 금식하는 방식에 대한 이 번역은,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약간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랑의 아들들이 신방의 아들들의 언어로 제시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손님들뿐만 아니라, 신랑과 함께 즐기고 축하할 책임이 있는 가까운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방에서 경비를 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임무 중 하나였고, 신방을 보호하고 결혼의 성취를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받아 앉아서 케이크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랑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신랑의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어는 예수께서 신랑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장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와 함께라면, 그것은 신부의 축하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랑의 아들들, 은유적으로 말해서, 신랑의 하인들이 함께 있는 기쁨의 순간과 같고, 결혼식에서 금식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결혼식 축하 행사에서 금식을 하는 것은 그 순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기쁨의 순간이자 축하의 순간입니다. 금식은 어떤 이유에서든 의도적으로 음식을 자신에게서 멀리하는 생각입니다. 금식의 고통을 묵상하여 헌신적인 행위에 도움이 되든, 헌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거부하든 말입니다.

금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개 어떤 형태의 헌신이나 경건함과 관련하여 따로 정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식의 핵심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금식은 음식이 부족하고, 고통받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주변에 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고통받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은 신랑의 아들들이 결혼식 축하 행사 중간에 금식하는 것만큼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구약성서의 언급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62장, 에스겔 16장 등에서 신이 신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전에 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불평이 암묵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의 끝에는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연회가 있는 위대한 결혼 연회 잔치의 개념, 축하되는 결혼 잔치.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이미지가 작용합니다. 비유하자면 신랑, 결혼의 개념, 결혼에서의 금식은 제자들의 불일치와 그의 면전에서 금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말했고, 어느 정도는 그들의 상황에서는 말이 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은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요. 나는 변하는 존재예요.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거야. 아주, 아주 강력한 진술이야. 하지만 그는 이 그림과 은유에서 벗어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결혼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

알겠죠, 하지만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글썄요, 신랑의 손님들이 갑자기 모두 금식하고 애도하는 일반적인 결혼 관습의 그림은 없습니다 .

그래서, 그는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바꾸었습니다. 약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당신이, 그리고 제 생각에, 예수가 현재 결혼과 비슷한 기쁨의 기회로 여기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심과 갈망을 경험하게 될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금식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가 말하는 이 시간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 시간은 올 것이다.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에게서 따온 문구이다. 나는 승천이라는 선택지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은 그것이 좋은 순간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알려주실 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 것을 이것과 연결시키고자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가 다가오는 체포와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그가 그들에게서 데려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데려가지는 순간, 재판, 체포, 재판, 십자가형, 매장을 언급하는 순간은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 순간들은 결혼 잔치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부족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제자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가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은유, 새로운 상황이 있다는 생각, 신랑이 현존한다는 생각, 새로운 상황이 작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21절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다듬지 않은 천 조각을 꿰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조각이 낡은 것에서 떨어져 나가서 찢어짐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와 가죽 부대가 모두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단순히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의 부활이 제자들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과 포도주에 대한 이 논의는 새로운 것의 효능을 보여주는데, 새로운 포도주는 너무 강력해서 낡은 포도주가 그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또는 다듬지 않은 천, 새 조각이 오래된 천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이미지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당신이 낡은 천과 새 천 사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낡은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바리새인들이 가정했을 수 있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을 엄격히 고수하는 것과 일치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다르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강하며, 나의 임재 안에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강력한 재고가 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용어로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래를 구전 전통이나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한 이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낡은 천에 새 천을 덧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 앞에서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란, 이 작고, 작지만 강력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23절에서 28절까지 발생하는 다음 논란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논란이 계속 쌓인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주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지 주목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많은 이슈들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어떻게든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구전 전통의 많은 부분이 음식을 중심으로 하고 식사 관행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매우 유사한 주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2장 마지막 구절인 23절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셨고, 그의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그들이 안식일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뇨? 그가 대답하되, 다윗이 자기와 그의 동료들이 배고프고 궁핍할 때에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었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먹고 안식일이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논쟁이 실제로는 약간의 곡식을 반짝이고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3장에 의해 낫선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허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수확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금지된 일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슈나에서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24절, 실례합니다. 27절에 이 격언이 있는데, 28절에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언으로 이어지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 격언으로부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과정을 살펴보죠. 우선, 그 패턴을 주목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보세요, 왜 그들은 안식일에 불법적인 일을 합니까? 그 상호 작용은 스승에게 추종자들이 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묻고, 추종자들에게 스승이 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한 전술이며 갈등을 시작하는 드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자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당신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이나 사고방식을 제공하십니까? 특히 당신과 함께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하세요. 그는 성경으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과 성경적 토론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에서 기대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를 사용하여 특정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단언적으로 같은 내용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거나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경에서 배고프고 그들의 필요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필요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필요하다면 의식적 관행을 무시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확증함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려고 하는 연결은 다윗이 한 의식적 관행은 성찬된 빵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합법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따로 구별된 빵, 즉 봉헌된 빵, 의식적으로 따로 구별된 빵을 먹도록 허락합니다. 물론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확실히 궁핍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고, 이것이 그가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주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그가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한 일이 옳다고 확언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필요 때문에 빵을 먹게 한 것이 옳았다면, 그들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필요 때문에, 의식을 깨기 위해 빵을 먹는 것이 옳았다면, 그 필요는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옳았다면, 그는 제자들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거두는 요구 사항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의 필요를 포기하고, 그들이 먹어야 할 필요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점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바리새인들이 익숙했을 유대인의 주장 유형입니다.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부수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성경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 즉 다윗의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별된 떡을 먹었습니다.

글쎄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입니다.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까?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시대를 빼고 삭제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아비아달과 아히멜렉도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을 추가하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적어도 혼란스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사무엘하 8장 17절, 역대상 18장 16절, 역대상 24장 6절, 심지어 족보를 보면 약간의 상호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아비아달 시대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고대의 맥락에 현대적인 말투를 도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나 시대에 대해 말하고 그 시기를 특징짓는 가장 지배적인 인물을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다윗의 시대에 더 지배적인 대제사장이었고, 아히멜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시대에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진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음, 글쎄' 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히멜렉이 그 곳의 대제사장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고, 그 시대를 특징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대를 가장 지배적인 인물로 자주 특징짓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지 워싱턴 시대의 미국 독립 전쟁 기간과 비슷할 것입니다.

반드시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조지 워싱턴 시절에 그 시기를 특징짓는 말로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것일 겁니다. 관심이 있다면, 여기 보이는 진설빵, 안식일 직전에 굽는 빵, 열두 개의 빵이 제사장을 위해 구워집니다.

이제, 저는 그가 여기서 다윗에게 가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서 다윗에게 가는 것은 또한 메시아적 메아리가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는 다윗이 옳은 일을 하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가 한 일과 그가 그의 추종자들이 하도록 허용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그가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진술로 이어집니다.

우연히, 우리는 2세기 랍비, 2세기 AD 랍비가 출애굽기에 대한 주석으로 쓴 매우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당신에게 주어졌지만, 당신은 안식일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2세기의 랍비가 예수가 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다리를 얻었거나, 이런 종류의 진술 아이디어를 가진 전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셨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장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치는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글썄요, 이것이 이 상호작용의 첫 번째 부분이고, 분명히 논쟁입니다.

제 말은, 예수께서 25절에서 "너희는 읽은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읽은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 제 목표는 여러분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것은 예의 바른 토론을 소개하는 친절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서기관의 토론이며, 예수께서는 매우 하가다적인 논쟁 방식을 따르십니다.

그는 매우 표준적인 주장 방식을 따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원칙을 증명하는 다른 예를 찾을 것입니다. 즉, 필요성이 법적 계명을 극복할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서기관과 같은 권위에 매우 부합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안식일의 의도를 선언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목적을 압니다.

이것은 넘어갔습니다 . 그때 여기서의 토론은 그들이 이 곡식을 줌의 데 옳은 일을 했는가를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했는가?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면, 그것은 성경에 부합한다고 말하면서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목표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의도를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의 의도를 선언할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관점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안식일에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입장은 섬기는 것, 인류를 섬기는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인류가 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회복하고 회복할 시간을 즐기고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실제로 다가올 시대의 시간은 종종 안식일을 끊임없는 휴식과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즐기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봉사의 날이 되어야 했고, 따라서 안식일이 봉사의 날이 되어야 한다면, 만약 남자가 안식일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여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글썄요, 안식일의 핵심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보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돌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삽입한 인공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의 타이밍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 또는 행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1년을 생각해 보면 하루의 타이밍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의 주는 하나님이 삽입한 시간으로, 그 중 일부는 안식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은 안식일을 선물에서 부담으로 바꾸었다면, 안식일이 의도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신,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안식일을 어긴다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집힌 것입니다. 안식일을 둘러싼 구전 전통의 규정은 안식일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정당화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입니다 . 이제 우리는 인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이는 흥미로운 칭호입니다. 인자는 예수가 가장 자주 자신을 지칭하는 그리스도론적 칭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게 부여하는 칭호는 드뭅니다.

보통 예수는 주님 또는 메시아, 신의 아들로 선언됩니다. 하지만 인자는 스스로 그것을 떠맡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를 단순히 인간, 사람, 즉 당신이 그를 생각하는 인자와 같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멸성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나에 대한 가능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론적이지 않고, 전혀 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나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가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인자가 마가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론적 칭호로, 아마도 다니엘 7장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묵시록적 환상이 작용하고,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을 상대로 전쟁과 전투를 벌이는 다양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 속에서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자로 묘사된 최후의 인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대표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아들과 같고, 전쟁 중인 왕국과 그 왕국과 관련된 상징주의 때문에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창조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룰 시간이 없지만, 그들은 모두 짐승이지만 그들을 정복하는 사람은 인간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그림, 에덴 동산 그림, 짐승이 있지만 짐승을 지배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은 심판대에 앉은 인자와 같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동반자 가운데 앉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다니엘 이후에 발전하여 이 인물적 관념으로 발전하여, 예수 시대 무렵의 다른 제2성전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인자에 대한 욕망이 있고,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묘사했던 이 인물이 이제 분명히 올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인물이죠.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때때로 인자를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낮은 인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높은 그리스도론적 칭호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높은 그리스도론적 칭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권위와 권능을 언급할 때 종종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이 인물, 즉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듯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 예수는 그것을 확증하고 나서, 너희는 구름 속에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 이 메시아라고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와서 심판할 인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인물은 예수가 원하는 칭호를 스스로 취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8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인자가 사람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말하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기서는 별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권위 있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에서 이미 본 것과 다르지 않지만, 이것이 마비 환자를 고친 것이었을 때, 인자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죄를 용서하거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더 쉬운지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28절을 살펴보고 예수께서 안식일의 의도를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안식일의 의도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식일의 주님이시며, 즉 그는 안식일을 주셨고 그 이유를 아십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진술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권위적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방식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여 예수께서 전에 본 적이 없는 권위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권위로 기적을 일으키고, 권위로 귀신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아가 나병환자의 이야기를 거쳐가지만, 마비된 사람과 안식일에 곡식을 따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권위가 요한 세례자가 그를 불렀던 것처럼 단순히 더 강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정체성 때문에 더 강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온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왔고, 타락을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 기관이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를 깨끗하거나 더럽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그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었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더욱 더 갈등으로 이어질 성명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 차원이 아니라 신의 차원에서 자신의 권한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 작용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논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 논쟁을 볼 것이고, 우리는 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엑소시즘의 엄청난 수에 대해, 그리고 이제 분명히 경계선이 그어진 곳까지.

다음에 만날 때 3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마크 제닝스 박사가 마가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18-28에 대한 5번째 세션입니다. 공적 사역은 계속됩니다.